낚시 명소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

서귀포 지역 해변·포구 낚시 왔다가 쓰레기 '툭'

행정 "단속하기 쉽지않아 무엇보다 시민의식 절실"

낚시 명소로 유명한 서귀포시 지역 해변 및 포구 일대가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에서는 인력 등의 한계로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4일 찾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해안도로. 이곳은 천혜의 바다 경관과 더불어 낚시 명소로도 알려져 낚시객을 비롯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는 해안도로 주변 갯바위에서 20여명의 낚시객이 곳곳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화순항 관공선부두(왼쪽)와 영락리 해안도로. 이태윤기자

그러나 갯바위 일대에서는 버려진 갯지렁이용 포장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쓰레기는 인근 주차장에서도 눈에 띄었다. 특히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구역이 아니었지만 각종 페트병과 유리병 등을 비롯한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주차장 한편에 버려진 채 방치돼 있었다.

같은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관공선부두에 조성된 등대 인근 테트라포트 위에서는 낚시객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고, 테트라포트 주변 공터에는 바람에 널브러진 각종 쓰레기가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

영락리 소재 갯바위에서 만난 한 낚시객은 "낚시 이후 발생한 쓰레기는 본인이 챙겨가야 하는게 예절"이라며 "갯바위 인근 해안도로 주차장에 경고문 등을 설치해 쓰레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바다지킴이를 통해 해안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에는 총 65명의 바다지킴이가 해안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원 여건상 한 지역에 상주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통계로 본 '2018년 제주 사망 현황·분석'

하루 10.7명 사망… 원인 '암' 최다

암은 폐·간·대장·위 순 심·뇌혈관 비중도 높아

지난해 제주지역 사망자 100명 가운데 27명이 암으로 숨지며 사망원인 중에서 가장 높다. 이어 고혈압·뇌혈관질환 등 순환계통질환에 의한 사망자도 100명 중 18.7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운수·낙상 등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보다 갑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18년 제주 사망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사망자 수는 3912명으로 하루 10.7명 꼴이다. 지역·연도별 연령구조 차이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2005년 기준 연령별 인구로 표준화한 사망률인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환산하면 사망원인은 암(91.3명), 자살(27.3명), 심장질환(26.9명), 뇌혈관질환(18.5명), 폐렴(16.8명)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암으로 숨진 사망자 수는 1059명(27.1%)에 이른다. 사망원인 별로는 폐암(200명)과 간암(148명), 대장암(120명), 위암(96명), 췌장암(79명) 등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다.

이어 순환기계통의 사망자 수도 732명(18.7%)으로 적지 않다. 사망원인 별로는 뇌혈관질환(251명), 기타 심장질환(210명), 허혈성 심장질환(160명), 고혈압성질환(56명) 등으로 뇌출혈 및 뇌경색, 심장마비 등에 의한 사망자 수의 비중이 높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조사망률(1000명 기준)은 595.7명이다. 인구증가로 인해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2017년 10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늘었다. 다만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17년 327.8명에서 지난해 326.1명으로 1.4명 줄었다. 젊은층의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볼때, 간질환은 제주(11.9명)가 호남권인 전남(10.8명), 전북(9.1명), 광주(7.4명)에 비해 매우 높다. 제주도민의 음주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60%를 상회, 절주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이 호남권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금탁기자

16일 직업계고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오후 2시부터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나래홀에서 특성화고 인식 개선을 위한 고졸취업 성공시대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선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교수가 '노동과 직업의 가치'라는 주제로 미래사회의 인식 변화에 대해 강연한다. 특성화고에 두 자녀를 진학시킨 학부모 최선영씨와 특성화고를 졸업해 한국전기차서비스에 근무하는 강요한(한림공업고 졸업)군도 무대에 올라 '특성화고에서 키운 꿈', '4차 산업 직업의 시작, 특성화고'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제주에서 가을 즐기기… 오름과 나홀로나무 선선한 가을날씨를 보인 15일 제주시 금악리 새별오름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나홀로나무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내 초등학교 상담교실 운영 저조

'위 클래스' 설치율 26% 인력·공간 확보에 난항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자살 등의 위험이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한 상담교실, '위(Wee) 클래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장기적으로 모든 학교에 '위 클래스'를 둔다는 계획이지만 상담 인력과 공간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95곳에 '위 클래스'가 설치돼 있다. 전체 학교 대비 설치율이 51%에 그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도내 중·고교의 '위 클래스' 설치율은 각각 82%, 97%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113곳 중 29곳만 '위 클래스'를 두고 있어 설치율이 26%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 초·중·고의 설치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학재(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의원이 이날 공개한 17개 시·도교육청 '위 클래스 설치율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설치율은 61%였다. 제주는 전북(31%), 전남(45%)에 이어 위 클래스가 적은 곳에 들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이나 학업 부적응 학생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전국 모든 학교에 '위 클래스' 같은 상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상담시설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주도교육청도 모든 학교에 위 클래스를 둔다는 계획이지만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담실 공간 확보에다 전문 상담인력 충원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탓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모든 학교에 '위 클래스'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까지 4곳을 추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라" 반대단체 세종청사앞 회견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5일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며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중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창당 선포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설립과 제주남부탐색구조대 창설을 제주 민중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개교 65주년 기념! 우정과 화합 제주서초! 그 영원한 이름으로!
제21회 제주서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유년의 추억과 낭만이 묻어있는 용담벌에서 1만8천여 동문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제21회 제주서초등학교 총동창회 제서인의날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9년 10월 20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모교운동장 (우천시도 계획대로 진행)
참석대상 모교 동문 및 가족
경기종목 족구(남) · 여자축구(여) · 이어달리기 장작옮놀이 · 줄다리기
기 타 (가족·어린이를 위한) 이벤트게임 동문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
연락처 대회장 : 오창환(19회) 010-2263-0264 · 집행위원장 : 김흥식(20회) 010-7174-0252 총동창회관 사무실(구. 삼담파출소 앞 다올해피죤 2층) T. 725-1931

제주서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오창환
총동창회임원
고문 김두경 (1회) · 현안식 (1회) · 장수항 (1회) · 박승혁 (2회) · 박훈규 (2회) · 고광식 (3회) · 고봉식 (4회) · 신제복 (5회) · 고성전 (6회) ·문경언 (7회) · 서정진 (8회) · 양태효 (9회) · 이철수 (10회) · 박봉수 (11회) · 소원옥 (12회) · 문석종 (13회) · 문원규 (14회) · 김기홍 (15회) · 강순구 (16회) · 조건형 (17회) · / 자문위원 양석후 (4회) · 고창돈 (7회) · 고효자 (10회) · 이석문 (13회) · 박희수 (16회) · 김선우 (16회) / 총동창회 직전회장 고성효(18회) / 총동창회장 오창환 (19회) / 수석부회장 한기완 (20회) / 감사 김기영 (18회) · 문창용 (21회) / 총무부회장 홍태욱 (26회) ·/ 재무부회장 김명미 (22회) / 여성부회장 박재희 (19회) / 사업부회장 이기욱 (19회) / 조직부회장 고동훈 (27회) / 홍보부회장 강정선 (21회) / 부회장 고병수 (19회) · 고영준 (19회) · 김성후 (19회) · 문성철 (19회) · 박창수 (19회) · 박홍지 (19회) · 한희경 (19회) · 고순정 (20회) · 박민호 (20회) · 김황국 (21회) · 김창남 (21회) · 김형종 (22회) · 양승필 (23회) · 고경훈 (24회) · 양일남(25회) 한경미 (26회) · 문창민 (27회) · 김영심 (28회) · 한종선 (29회) · 백영식 (30회) / 여성부장 김경민 (29회) / 총무부장 이동훈 (29회) / 재무부장 홍은영 (29회) / 사업부장 문형철 (28회) / 조직부장 정도군 (32회) / 홍보부장 정민숙(30회)
각 회기별 회장 명단
현석훈(1회) 한석인(2회) 김창우(3회) 박흥식(4회) 문동식(5회) 김수연(6회) 한기섭(7회) 서영희(8회) 고관수(9회) 강순정(10회) 좌순심(11회) 김완국(12회) 김명환(13회) 김수진(14회) 정근선(15회) 김은지(16회) 고희주(17회) 정순아(18회) 이양수(19회) 김흥식(20회) 홍승찬(21회) 강춘식(22회) 김경철(23회) 김성률(24회) 이창희(25회) 김수길(26회) 고병식(27회) 홍현삼 (28회) 변성훈(29회) 김형진(30회) 오일남(31회) 김필수(32회)
동아리 회장
재경동창회장 강종필(17회) 골프동우회장 김완국(12회) 오름연합회장 양태효(9회) 낚시동호회장 박홍주(17회) 바둑동우회장 장거수(7회)

주최 : 제주서초등학교총동창회 | 주관 : 제20회·제30회 동창회 | 대회장 : 총동창회장 오창환(19회) | 집행위원장 : 김흥식(20회)
제주서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오 창 환
제주서초등학교 동창회관 ·주소: (63154) 제주시 용담로 141 (302호) 다올해피죤 · TEL: (064)725-1931 · FAX: (064)725-1932 · 사무국장: 오경희(18회) 010-2695-7733